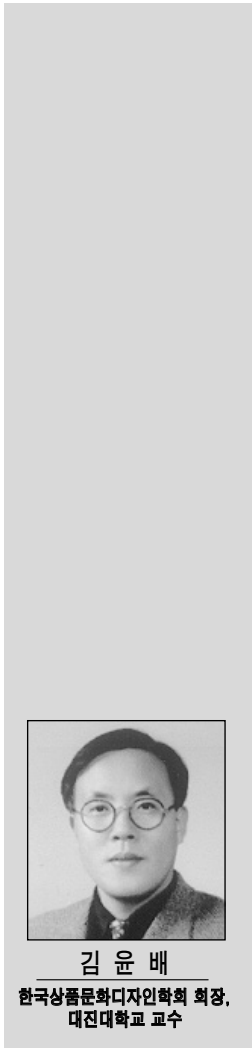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의 힘: 친환경 패키지디자인

Environmental Package-Design



김 윤 배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회장,
대전대학교 교수

친환경 패키지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지혜로운 절제로 환경 살리기
4월이면 봄바람이 남에서 불어온다는 노래가 있지만, 우리에게 황사가 불어오는 4월로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그런 황사에 미네랄이 풍부해 좋은 점도 있다니, 모든 일에는 동전과 같은 양면성이 존재한다.

산업화와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그 뒷면에는 자원남용과 환경오염이란 얼룩을 남겨놓았다.

또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물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그로 인한 자원의 고갈, 기후 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가 위협수위에 도달하였다.

과자 하나를 사도 겹겹이 싸인 비닐 포장과, 플라스틱 용기들 때문에 집집마다 재활용품 보관 바구니는 늘 넘쳐난다. 때로 인간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려고 사는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더욱이 그런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은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니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이 매우 염려된다. 친환경 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지나 포장용기의 사용을 줄이거나, 친환경화 하여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디자인이다. 친환경디자인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한 필요덕목이며, 그러기에 친환경 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면' 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실천과제이다.

친환경 농산물패키지 디자인의 방향: 생산자에겐 이득, 소비자에겐 힐링

농산물 패키지는 자연의 근본 바탕인 땅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욱 친환경적인 패키지디자인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아내고 전달하는 패키지가 환경에 적대적이라면 친환경의 의미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 얻기 힘들다.

그렇다면 친환경 패키지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가?

그것은 생산자에게는 이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힐링이 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자에게는 최소한의 간결한 아름다움을 지니면서도 가격 부담이 적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판매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쓰레기를 양산하지 않는 미덕,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미덕을 지님으로써 패키지의 사용과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힐링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 그리고 디자인 담당자는 상품의 생산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패키지디자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 연구는 친환경 패키지의 유형에 대해 감량, 재사용, 재활용, 생물학적 분해,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농산물 패키지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감량, 즉 포장의 최소화 에 있다.

말 그대로 포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니,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단순함의 미학을 살리며 불필요한 포장을 지양하고 포장 재료를 최소화하면, 이후 소비 과정에서 폐기되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게 된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호응을 해주어야 한다. 즉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가 과대포장은 아닌가를 살펴보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부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사용(Reuse)이 가능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하고 난 상품패키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폐기되는 양을 줄이고 사용기간은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다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 리디자인 혹은 리폼 그리고 수명 연장 등의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해, 우유팩에 음식을 담아 냉동 용기로 사용한다거나, 잘라서 작은 소스나 양념통 보관용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사용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제품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포장에 남겨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명하고 알뜰한 재사용으로 환경에 유익을 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쁨은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

세 번째는 생분해가 가능한 포장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패키지의 소재 면에서 기존의 화학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소재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친환경 패키지디자인의 실천 중 재활용과 감량은 비교적 실행이 용이한 반면,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하는 문제는 연구 및 개발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적용비율이 낮은 분야이기도 하다.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화학제품패키지들은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 축적되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는 소재로 패키지를 제작하면 썩어서 비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원시적 재료로 만드는 '로가닉' 패키지 개념이 등장했는데, 로가닉이란 낱것을 의미하는 raw와 organic의 합성어다. 자연에서 얻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지푸라기를 엮은 달걀꾸러미야말로, 버려지는 지푸라기를 활용하기도 하거니와 폐기되면 생분해되는 훌륭한 친환경패키지가 아닌가. 자연에 맞서기 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온 동양의 자연관이 이러한 친환경디자인의 개념과 상통하니, 하늘과 땅의 조화에 순응해온 우리 선조들의 철학과 혜안이 참으로 놀랍다.

네 번째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용 방법을 찾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되는 양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디자이너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재활용과 분리 폐기가 손쉽도록 단일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소비자는 철저히 분리하여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친환경 패키지디자인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문제를 두루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외형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듯이,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패키지의 순기능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Mp3 플레이어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는 방법을 바꾸어놓았다. 좋은 디자인의 농식품패키지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2016 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모든 이가 함께 모여 그 대안들을 활발히 모색하는 열린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 '생명의 땅, 전남'이 그 힘의 원천이 되리라. 

참고문헌

한국 패키지 디자인의 개발 전략/김광현 저/조형사

친환경디자인이란/ 임승빈/서울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0

에코디자인패키지의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정주연,정지우/디자인지식저널/2013

에코패키지 디자인 속성의 가이드라인 연구/정주연/디자인지식저널/2012